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www.wiim.or.kr

원자력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 외에도 원자력 제철, 지역난방을 비롯하여 첨단과학기술로서 의학, 공업, 농수산업분야는 물론 식품보존, 각종 조사분석 등에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1995년 12월,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원자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원자력의 효용성을 바로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성적 접근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여성들의 원자력에 대한 편견 없는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원자력의 [참가치]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순수민간단체로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을 결성하게 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연수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 결의대회와 자녀와 함께하는 원자력실습 및 각종 바자회, 각종캠페인과 문화행사, 에너지환경지도사 양성 등으로 원자력의 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에너지나눔과 평화

지난 8월 31일 출범식을 갖고 문을 연 '에너지 나눔과 평화'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평화 정착에 노력하고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원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에너지저소득층 및 저소득 국가에 에너지요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에너지나눔과 평화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원자력발전 해결을 위한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소형열병합발전, 목질계연료 발전 등 분산형전원 확대 운동과 태양광, 풍력 등의 나눔발전소를 보급해 2020년까지 전국의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연대해 신재생에너지 100만kW보급을 계획 중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1000만 녹색요금 운동과 저소득계층이면서 동시에 단전(斷電) 위기에 처한 가정 10만가구를 나눔발전소의 수입금으로 지원해 에너지복지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제 3세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등을 지원해 에너지자립을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평안남도 강서군 협동농장에 나눔발전소를 조성하는 운동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